

코스피	코스닥
3314.53	833.00
(+54.48)	(+8.18)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430	1387.95
(+0.005)	(+0.05)

카뱅 전세사기 대출지원 도마에 장기적으로 총 금융비용 더 많아

청년 피해자 몰린 카카오펁 지원책은 시중은행과 ‘판관’ 금리지원 없이 이자 연장 혜택 만기일시상환시 총 비용 더 커

카카오뱅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위변제 후 잔여 대출금 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4대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리지원 없이 연장만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HF의 대위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 10%를 장기 분할,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지원을 더해 4% 초중반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는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장기 연

장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이자만 납부하게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지만 상환하는 방식이 고객 금융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 장기 연장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장기 연장프로그램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여서 장기분할상환대출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10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월 9만6561원으로 120개월 동안 총 1158만7320원이 소요된다. 반면,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이지만 10년간 납부하고 원금을 갚으면 총 금융비용은 1300만원이 소요된다. 카카오뱅크의 HF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연 2.510%에 가산금리 0.777%~2.224%를 더해 최소 3.287%~4.734%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식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점수

951~1000점 기준 모든 가감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가 1.28% 정도로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약 0.28%의 가산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하 신용점수를 가진 피해자 대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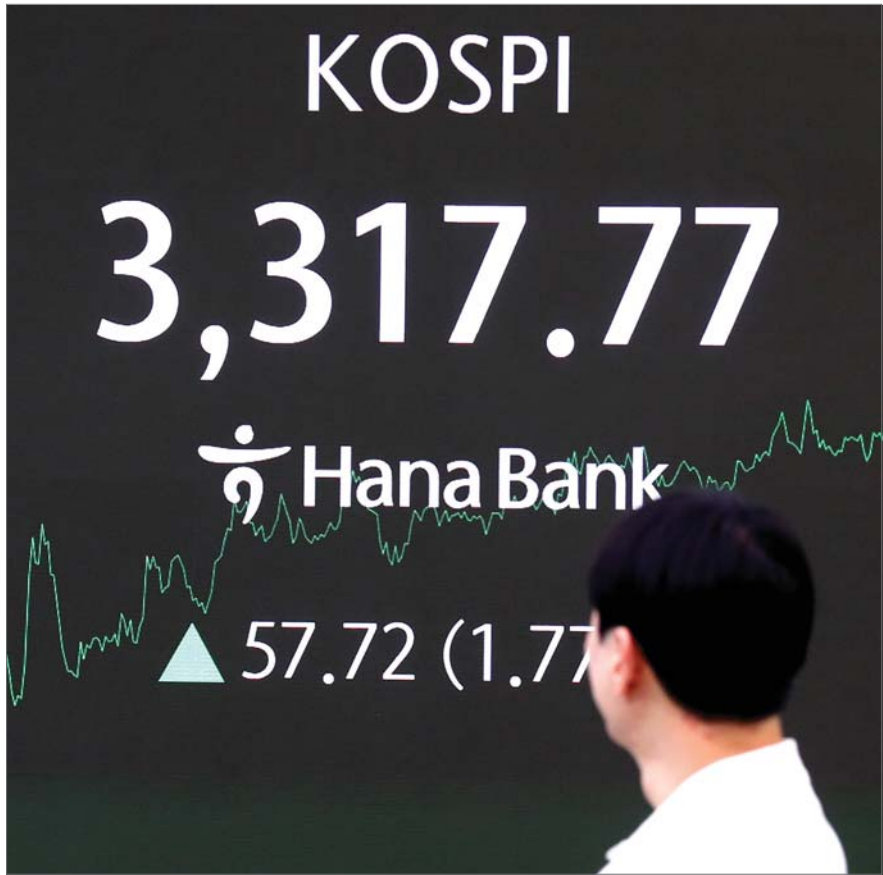
이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걸 고려해도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자만 납부하게 해 총 소요 금융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6월에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대위변제 후 귀 기관이 보유한 잔여 전세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유도에 협조해달라’고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일반 신용대출과 구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택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점인 3317.77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기존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을 4년여만에 넘어선 것이다.

/손진영 기자 son@

코스피 장중 3317 뚫었다 李대통령 취임 100일 축포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 반영
글로벌 증시혼풍에 외인 매수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0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

〈관련기사 13면〉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67% 상승한 3314.53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7월 6일 전고점(3305.21)을 기록한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 중에는 3317.7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점 3316.08(2021년 6월 25일)을 갱신했다.

사상 최고점 돌파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날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코스피 상승의 동력이 됐다. 다우지수는 0.4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7%, 나스닥지수는 0.37% 올라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외인 군단의 화력이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떠받쳤다. 외국인인 이날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3조원여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4조7000억원 가량 ‘팔자’였다.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에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으로 시선을 돌릴지를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 한 전문가들은 “예탁결제원에 쌓인 미국 주식 보관액은 1364억달러(8일 기준)가 넘는다. 원화로 200조원가량 되는 자금 일부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엄청난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의 여윌돈이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시장 대신 국내 증시로 유입되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선 국내 기업 및 산업 체질 개선과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한 펀드매니저는 “국내 증시의 초과 수익이 상당 기간 증명되면 후행적으로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시가총액과 지수가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등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JP모건은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했다. 글로벌 IB의 투자 의견을 참고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JP모건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코스피 지수가 2년 내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재계 총수들, 관세폭풍 속 美서 해법 찾는다

이재용, 북미 신사육서 현안 점검
정의선, 美 산업 행사서 미래 구상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부터 글로벌 빅딜, 미래 먹거리 투자 등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전에 볼수 없던 바쁜 행보를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최근 미국 출장길에 올라 현지 사업 점검과 미래 전략 구상을 위한 경영 활동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현지 주력 사업 점검을 위해 최근 북미 총괄법인(SEA) 신사육을 방문했다. 정현호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들도 동행했다.

최근 북미 총괄법인은 15년 만에 사육을 기존 뉴저지주 리지필드파크에서 인근 잉글우드클리프 지역으로 옮겼다. 1000여명에 달하는 총괄법인 직원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모두 새 사육으로 이동했다.

삼성전자 북미 총괄법인은 TV와 스마트폰 등 세트 제품의 미국 판매 및 마케팅을 맡고 있다. 또 삼성의 대미 로비 활동도 이곳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북미 총괄법인 신사육을 살펴본 뒤 북미 사업 현황을 일제히 점검했다. 최근 TV, 가전 등 주요 세트 제품이 관세 영향권에 들면서 이에 따른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의선 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 흐름과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현장 경영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건설 중인 미국 2차전지 합작 공장 직원 체포 후 임직원 미국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정 회장은 현장 경영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오토모티브뉴스 월드 콘GRESS 기조연설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정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와 전동화 전환에 대한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8일에는 뉴욕에서 진행되는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의 참석을 앞두고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한동훈 “李대통령 대출금리 발언, 신용사회 기반 무너뜨리는 것”
▲이준석 “李대통령 대출금리 발언, 금융 근간 흔들는 위험한 포퓰리즘”
/사진 뉴스

▲정치 9단 김종인 “조국, 성비위 사건으로 상당한 타격”
▲조국혁신당 상임고문 은우근 탈당… “피해자 공격 멈춰라”

▲野송언석 연설에 與 “김건희” “통일교” 고성… 우 의장 “비판·고함 성찰해야”
▲조현, 민진출 한국기업 ‘비자’ 건의 수렴… “재입국 불이익 없도록 최선”